

KIA, 불펜 강화 총력...조상우·김범수·홍건희 영입



계약기간 2년·총액 15억원 규모 FA 계약 체결
외인 원투펀치·양현종 등 완전체 투수진 출격
김범수, 3년 총액 20억원·홍건희, 1년 7억원

21일 KIA타이거즈 투수 조상우(왼쪽)와 심재학 단장이 총액 15억 원 규모의 FA 계약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가 불펜 전력 대거 영입으로 올 시즌 재도약을 노린다. 남은 내부 FA 조상우를 비롯해 김범수, 홍건희를 영입하면서 마운드 강화에 힘을 쏟았다.

KIA는 21일 “투수 조상우와 계약 기간 2년에 총액 15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8억원, 인센티브 2억원)에 FA 계약을, 투수 김범수와 계약 기간 3년에 총액 20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12억원, 인센티브 3억원)에, 투수 홍건희와 계약 기간 1년에 총액 7억원(연봉 6억5000만원, 인센티브 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3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네센히어로즈에 입단한 조상우는 2025년까지 10시즌 동안 415경기에 출전, 39승 89세이브 82홀드 485탈삼진 평균자책점 3.21을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 장현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입한 조상우는 팀 필승승의 한 축을 담당했다. 72경기에서 60이닝 6승 6패 1세이브 28홀드 평균자책점 3.90의 성적을 기록했다.

팀 내 가장 많은 홀드수를 기록했고, 두 번째로 많은 경기를 책임졌다.

구위 저하로 시즌 중간 기복을 겪긴 했지만, 필승으로 꾸준히 등판하며 마운드를 지켰다. 또 지난 8월31일 kt위즈전 이후 11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선보이는 등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기대했던 수준의 투구는 아니었지만, 팀 마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시즌이 끝나고 그의 FA 계약 과정이 쉽진 않았다. 조상우는 FA에서 A등급을 부여받았다. 조상우를 영입하는 타 구단은 원소속팀에 직전 연봉(4억원)의 200%와 보호선수 20인 외 1명, 혹은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했다. 조상우에게 확실한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영입 시도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KIA도 서두르지 않



김범수



홍건희

김범수는 “좋은 제안을 주신 구단에 감사하고 명문 구단에 입단하게 돼 영광이다. 팬들께서 저는 기대감이 크실 텐데,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팬들께 보답하겠다”며 “프로 데뷔 이후 지금까지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한화이글스 팬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한다”고 언급했다.

2011년 드래프트 2리운드 전체 9순위에 지명된 KIA에 입단한 홍건희는 12시즌 동안 488경기에 등판, 677이닝을 투구하며 27승 58세이브 55홀드 602탈삼진 평균자책점 4.92를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에는 20경기에 나서 16이닝을 투구하며 2승 15탈삼진 평균자책점 6.19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6월 트레이드를 통해 두산으로 이적한 홍건희는 이날 계약으로 6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홍건희는 “친정 팀으로 복귀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오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렌다. 하루 빨리 팬들을 만나뵙고 싶다”며 “구단에서 좋은 기회를 주신 만큼 팀 성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불펜 보강에 대해 KIA 관계자는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불펜 보강을 모색했다. 코칭스태프 전략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불펜의 약점을 거론돼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며 “내야 수비 강화를 위해 아시아 쿼터를 야수로 선택한 점도 이번 영입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준영, 양현종, 제임스 네일, 아담 올리와 계약을 앞서 미친 KIA는 조상우의 영입으로 지난 시즌 마운드 전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김범수와 홍건희까지 추가 영입하며 확실한 불펜 보강을 이뤘다는 평가다.

계약을 마친 조상우와 김범수, 홍건희는 스프링캠프 선수단에 합류해 23일 출국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gwangnam.co.kr

‘안영규 주장 복귀’ 광주FC, 새 시즌 주장단 구성 완료

주장 안영규, 부주장 신창무·최경록

“팀이 더 높은 곳으로 가도록 최선”

프로축구 광주FC가 새 시즌 팀을 이끌 주장단 선임을 완료했다.

광주는 21일 “2026년 광주 선수단을 이끌 주장에 안영규, 부주장에 신창무와 최경록을 임명하며 주장단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주장으로 선임된 안영규는 구단 통산 역대 최다 출장 기록을 보유한 ‘레전드’ 수비수다. 지난 2018년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시즌 동안 주장으로 활약하며 구단 역사상 최장 기간 주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안영규가 주장으로 팀을 이끌 기간 동안 광주는 K리그2 최다 승점 및 최다승 기록을 달성했으며, K리그1 3위와 구단 최초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 등 짙은 성과를 이뤄냈다. 2026년 다시 한번 주장 완장을 찬 안영규는 광주의 중심으로서 팀을 이끌 예정이다.

부주장으로 선임된 신창무는 2023년 광주에 입단한 이후 처음으로 주장단에 합류했다. 지난 시즌 고장 선수로서 솔선수범하며 팀 내 결속력 강화에 기여했으며, 개인적으로도 데뷔 이후 최다 출전을 기록하며 구단의 ACLE 8강 진출 및 코리아컵 첫



프로축구 광주FC가 새 시즌 팀을 이끌 주장단 선임을 완료했다. 왼쪽부터 최경록, 안영규, 신창무. 사진제공=광주FC

결승 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함께 부주장을 맡은 최경록은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주장단에 이름을 올렸다. 베테랑과 젊은 선수단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장 안팎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영규는 “다시 한 번 주장 완장을 차게 돼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크게 느껴진다”며 “감독과 코칭 스태프, 선수단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팀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주장 신창무는 “처음으로 주장단에 합류하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수단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앞장서고, 경기장 안팎에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이야기했다.

최경록 역시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부주장을 맡게 됐다”며 “팀이 안정적으로 시즌을 치를 수 있도록 베테랑과 후배 선수들을 잇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수 있다.

전 좌석에 걸쳐 2025시즌 대비 가격을 인하했으며, 성인 요금은 좌석별로 약 10~12% 수준 낮아졌다.

특히 청소년 요금은 최대 약 33%. 어린이 요금은 최대 75%까지 인하해 가족 단위 관람과 학생 팬층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단체 관람 혜택도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됐다. 2025시즌에는 20인 이상 단체에 10% 할인을 적용했으나, 2026시즌부터는 기준 인원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할인율을 40%로 확대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2026시즌 입장권 가격 인하...접근성 높인다

주요 좌석 약 10% 인하...10인 이상 단체 관람 시 40% 할인 적용 등

프로축구 광주FC가 2026시즌 입장권 가격을 내리고 관람 접근성을 높였다.

21일 광주FC에 따르면 지난 20일 2026시즌 입장권 정책을 확정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가격 인하와 혜택 강화를 단행했다.

광주는 2025시즌 입장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시즌에는 주요 권종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2026시즌 입장권 가격은 온라인 예매 기준 W석 성인 1만8000원, E석 성인 1만5000원, N/S석 성인 1만7000원으로 책정됐다.

청소년 요금은 W석 8000원, E석과 N/S석

7000원이며, 어린이는 전 좌석 2000원에 관람할

광주시체육회, 운영 투명성·체육인 권리보호 앞장

법률·노무 전문가 위촉...“선수·지도자 보호” 노력

광주시체육회가 체육회 운영 전반의 법률·노무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2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자문 변호사 및 자문 노무사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사법·행정·노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체육회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 변호사로는 손창환 변호사(법무법인 로펌 대표)와 박강희 변호사(법무법인 맥 대표)가 위촉됐다. 손창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광주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광주백화점 회장 등 체육 현장 경험을 겸비한 법률 전문가이다.

박강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전 광주지법원 부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등을 지낸 법조계 종전으로 현재는 광주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자문 노무사로는 문승춘 노무사(노무법인 월드 대표)가 위촉됐다. 공인노무사 10기로, 광주지방검찰청 시민위원회 위원과 광주상공회의소 경제자문위원회 역임했다.

현재 광주경영자총연합회 자문노무사와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제주지회장을 맡고 있는 등 노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권위자다.

시체육회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체육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법률과 노무 자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문가 자문체계를 통해 체육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수·지도자·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9일 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자문 변호사 및 자문 노무사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